

청년부채해방, 현실 속에서 희년의 길을 찾다.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공동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향교회,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예수마을교회, 희년함께

발행일 | 2018년 11월 22일(목)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향교회,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예수마을교회, 희년함께

순서 및 목차

사회 : 이상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7:30~7:40

사례발제1 : 희년 함께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4쪽

7:40~7:50

사례발제2 : 예수마을교회

이파람 예수마을교회 청년부 목사 41쪽

7:50~8:00

사례발제3 : 온누리교회(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오종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팀장 49쪽

8:00~8:10

사례발제4 : 서향교회

김지섭 서향교회 고엘뱅크 뱅크장 53쪽

8:10~8:20

사례발제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설성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 팀장 68쪽

8:20~8:50

토크 콘서트

사례발제 1 : 희년함께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한국사회 부채문제에 대한 희년함께의 희년실천사례

1. 희년 정신과 부채 사회

가계부채 1400조 시대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건물주의 자녀로 선정되지 못해 부모의 지원 없이 인생을 출발하는 대다수 ‘흙수저’ 청년들은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인생의 출발부터 빚에 시달린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와 공부를 병행한다. 학점과 스펙 관리가 쉽지 않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병이라도 나면 말 그대로 실신(실업+신용불량)할 상황이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금수저, 은수저 청년들은 생계의 걱정 없이 학점과 스펙관리에 집중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금수저, 은수저 청년들의 몫이 된다. ‘흙수저’ 청년들은 자신들을 ‘N포세대’,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라 부르며 자조 섞인 탄식을 내뿜는다. 세대를 이어 가난이 고착화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죄로 타락한 이 땅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내세를 기다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과 이웃들의 삶을 방관할 것인가? 현재나 내세나 모두 하나님이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세워놓으신다.

하나님사랑·이웃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애쓰며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어 완성하실 새하늘 새땅의 하나님나라가 보이며 하나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들과 전망에 눈이 뜨인다. 불의한 현실을 상수로 두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며 힘을 빼려고 할 때

에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상상력을 열어준다.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계획하신다.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나라의 본모기를 보여주어 만민을 하나님나라로 초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하고자 하신다(창 18:19).

400년 후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노예착취에 기초한 제국의 질서가 아닌 형제애와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우고자 하셨다. 제국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만민을 하나님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나라의 법과 제도를 가르쳐주셨다.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담긴 이스라엘의 법전과 같은 책이다. 이집트제국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사랑·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노예착취에 기초하여 번성한 이집트제국과 달리 형제자매 우애와 지파들의 연대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담겨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주요한 도구는 '땅'과 '빚'이다. 레위기 25장의 회년에는 토지반환, 노예해방, 부채탕감, 생태계 휴경 등 착취와 억압이 아닌 형제(자매)애와 정의를 담은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빚'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빚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 네 이웃이 가난하게 되어 곁에 있거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에의 빚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레 26:12-13)

이집트 제국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우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 가난하게 되어 생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후히 빌려주라고 말한다. 착취와 억압 위에 세워진 이집트 제국과 달리 하나님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 이자에 관하여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출 22:2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레 25:35-37)

가난한 이웃이 곁에 있으면 빚진 사람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고 하신다.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살이하던 자신을 구출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맞아들여 어려움을 돌보라고 명령하신다.

- 담보에 관하여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출 22:26-27)

사람이 땀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신 24:6)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신 24:12-13)

모세오경 곳곳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옷이나 댕돌이나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는 담보를 잡지말거나 잡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한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잡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은 부자의 소유권보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유재산권이 신성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낮은 발상이다.

하지만 오경에서 예언서(암 2장, 겔 18, 22장, 느 5장)까지 구약의 전통은 일관되게 이웃의 가난한 처지를 볼모 삼아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려는 이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곤궁에 처해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 빚 탕감에 관하여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신 15: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신 15:7-9)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은 면제년이다. 안식년이 돌아오면 가난한 이웃들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해야 하고 빚으로 인해 종이 되었다면 종에서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가난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인권의 침단을 달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긴급한 생계로 인해 발생한 소액부채 장기연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려고 할 때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온다. 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들에게 이웃의 곤궁한 상황보다 면제년에 빚이 탕감될 것을 염려해 돕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 무이자, 무담보, 빚탕감의 토대 :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

성경은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이 곤궁에 처해 있으면 무이자로, 담보 없이 빌려주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주라고 한다. 성경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하나님께서 무이자, 무담보, 빚탕감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레위기 25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하나님나라의 근사치인 희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안식일/안식년/희년이라는 제도적 차원과 희년이 되기 전에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땅을 사서 돌려주는 ‘고엘(**גוֹאֵל**)’이라는 관계적 차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를 상징하는 것이 ‘고엘’이다. 이웃의 곤궁한 상황보다 빌려준 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상태에서는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힘들다. 또한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 부담스러워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의식이 충만하다면 생각은 달리 전개된다.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도우면 나중에 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관건은 어떻게 먼저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한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였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신 5:6)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5:10)

문제는 오늘날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등극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까?

근족, 기업무를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우리말로 ‘대속자’, ‘구속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가 ‘구속(救贖)’ 또는 ‘대속(代贖)’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머리된 예수를 따라 이 땅의 곤궁한 이웃들에게 ‘고엘’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명령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다. 형제자매 우애와 연대로 가난한 이가 없는 하나님나라를 교회가 먼저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라고.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임이 핵심이다.

3. 빛에 관한 희년정신 오늘날에 적용하기

무이자, 무담보, 빚탕감에 담긴 희년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상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농경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오늘날 ‘빛’이 일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희년을 통해 이루려는 효과도 담보할 수 없다. 의미와 본질은 살리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빛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억압과 속박의 사슬’이 아닌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계층들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이자, 무담보, 빚탕감’에 담긴 의미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빛’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로 13:8)’고 한다. 성경은 빛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켜 ‘이웃을 착취하고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빛을 생각하도록 만든다. 혁명적 가르침이자 복된 소식이다.

- 금융의 본질 회복, 여유와 필요 사이 이어주기

‘억압과 속박의 도구’로 사용되던 ‘빛’이 ‘사랑과 연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빛을 관장하는 ‘금융’이 본연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의 본래 목적과 역할은 ‘여유와 필요 사이에 돈을 중개하는 것¹⁾’이다. 금융을 통해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으로 무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쓸 일이 없는 여유로운 사람에게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돈을 흘러보내 더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금융기관이 금융의 본분을 회복하면 빛은 ‘억압과 속박의 사슬’에서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바뀐다. 다행히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물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윤희유 역할을 해야 할 ‘금융’이 본연의 목적을 잃었을 때 주기적인 경제불황을 만들어내는 악의 축이 됨을 확인했다. 무한탐욕에 기초하여 오직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금융자본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유와 필요 사이를 이어주며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하려는 금융의 본분을 추구하는 은행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 사회적 금융

1) 이종수, 유병선 외 지음, 《보노보은행》(부키, 2013), 10

이처럼 여유와 필요 사이를 이어주며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하려는 은행을 ‘사회적 금융’이라 부른다. 사회적 금융의 구체적인 정의는 ‘경제적 지속성과 더불어 사회적, 생태적 임팩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지향 금융의 한 갈래²⁾’이다. 쉽게 말해 적절한 이윤과 지구환경의 보존과 사람의 회복을 함께 생각하는 금융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는 ‘가치 및 임팩트 지향’이다. 일반 은행처럼 단순히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곳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기업과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서 우리 사회와 지구환경을 이롭게 하는지, 해롭게 하지 않을지 검토하며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이윤만이 유일한 대출기준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며 돈을 빌려준다는 원칙이 있다.

사회적 금융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의 탄생과정은 사회적 금융의 ‘가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주류 금융기관들이 영리만을 추구하면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현실에 반발하여 탄생했다. 설립자들은 잘못된 현실을 발견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독교적 사상과 자연과학이 융합된 철학이자 정신적 문화운동인 인지학의 영향을 받았다.³⁾

사회적 금융의 두 번째 특성은 ‘관계 지향’이다. 사회적 금융은 대출자와 저축자들이 익명의 관계 속에서 돈만을 중개해주는 은행을 지양한다. 사회적 금융의 또 다른 사례인 독일의 GLS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금중개를 통해 예금자와 대출자가 익명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주려는 것이다. GLS은행이 일찍부터 예금자에게 맡긴 돈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를 묻고, 이자를 예금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GLS은행은 고객을 대단히 피곤하게 만드는 은행이다. 세상에 대해 무관심해지지 말고 늘 깨

2) 이종수, 유병선 외 지음, 《보노보은행》(부키, 2013), 13

3) 이종수, 유병선 외 지음, 《보노보은행》(부키, 2013), 45

어있는 시민이 되라고 고객을 뒤통한다. 이 욕심 많은 은행과 거래를 하려면 고객들은 부지런해야만 한다.⁴⁾

일반 은행이나 사회적 금융 모두 ‘빛(대출)’을 다루지만 빛을 대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이웃의 형편과 여건보다 ‘돈’을 중시할 때 ‘빛’은 이웃을 향한 ‘억압과 족쇄’가 되지만 이웃의 어려움과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때 ‘빛’은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 된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의 다양한 시도는 희년정신을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 오늘 여기에서 한걸음, 희년은행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희년의 꿈을 꾸고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 가운데 나온 희년은행 역시 기본 모델은 사회적 금융의 사례 중 하나인 무이자금융을 지향하는 스웨덴의 JAK 협동조합은행 모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의 돈이 목적 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도구로 쓰이길 바라며 희년은행에 무이자로 저축해준 희년은행 조합원들의 선한 의지는 한국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4. 고금리 청년부채문제에 대한 희년실천의 첫 걸음, 희년은행

- 희년은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 한국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 빚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년함께’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자 무이자 은행 희년은행을 시작했다. 희년은행은 무이자 저축으로 모여진 자본을 수익률이 목적이 아닌 청년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투자한다.

4) 이종수, 유병선 외 지음, 《보노보은행》(부키, 2013), 35



희년은행을 시작한 ‘희년함께’는 1984년에 성경의 희년정신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고대 유대사회 50년마다의 희년에는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반환이 이루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었다. 모두가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사회,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의 나라였

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토지투기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하다. ‘희년함께’는 특별히 토지의 공적가치를 사회가 함께 누리는 것을 희년정신의 핵심으로 보고 ‘토지공개념’ 운동에 집중해왔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인 불로소득(부동산 투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희년 정신실천이라고 본 것이다.

정책운동과 함께 희년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와 실천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해 2014년 희년함께는 부채탕감운동을 전개하였다. 희년함께가 초기에 주목한 부채탕감운동 방식은 부실채권을 소각하며 채무자 권익운동에 앞장선 희망살림의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이었다. 2011년 미국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운동의 ‘롤링주빌리’는 부실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 부실채권을 시민모금을 통해 매입해 소각하는 부채탕감운동이었다.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월가 금융 자본가를 필두로 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운동이다. 희망살림은 미국의 롤링주빌리 운동과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을 시작했다. 희년함께는 운동에 앞서 희망살림과 함께 부채문제 신학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채탕감운동의 성서적 근거를 한국교회에 알렸다. 이후 한국교회의 실상을 고발한 ‘퀴바디스’ 김재환 감독은 영화 수익금 3,000만 원을 부채탕감운동에 기부했다.

희년함께는 3,000만 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부채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문 중 하나인 청년부채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을 섭외하였다. 청어람, 기운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복음과 상황,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와 비기독교 단체인 청년연대은행 토닥과 함께 ‘청춘희년운동본부’를 조직했다. 무엇보다 오늘날 청년부채문제에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연합이었다.



‘희년함께’는 ‘청춘희년운동본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부채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채문제가 청년들의 주거문제, 심리문제, 사회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다. 부채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어떻게 작은 힘을 모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해외의 대안은행 사례를 주목하였다. 특별히 스웨덴 JAK은행⁵⁾의 사례를 통해 무이자저축을 통한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자본흐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29일 희년은행이 출범하게 되었다.

- 희년은행의 핵심구조

희년은행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본의 공익적 선순환을 지향한다. 고금리 부채를 지니 청년들은 조합원에 가입하여 무이자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무이자 출자한 만큼 무이자 대출권을 부여받아 안정적 저축습관과 재무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무이자 저축이 모이면 자본의 누적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안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본의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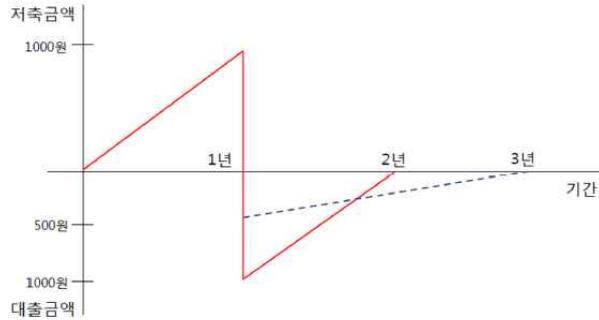
5) 이 은행의 시스템은 구성원들이 은행에 금리 없이 저축을 하는 대신 대출을 할 때는 2% 미만의 은행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8/2013081800876.html#csidx5a18203ec639a77b1c435c0f85928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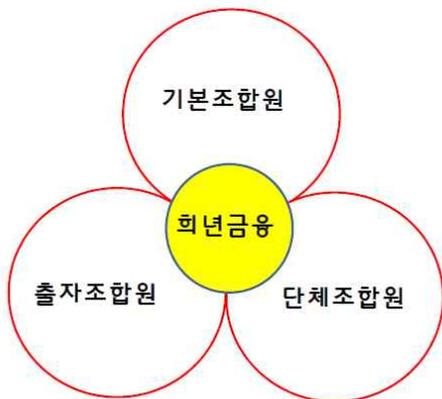
① 무이자출자 & 무이자대출

희년은행 기본조합원



희년은행의 기본조합원은 ‘무이자 저축’한 시간과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 거치기간 이후에 ‘무이자 대출권’이 생성된다. 안정적 소득과 자산이 부재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활 필수재 구매를 위해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금리 대출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재무습관을 개선하고 저축을 통한 무이자 대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청년의 삶이 재생되는 것과 함께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무이자 대출권’은 ‘저축포인트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하게 대출가능기간과 금액을 계산한다.

② 조합원 구분



* 기본조합원: 기본조합원은 매월 조합비(운영비) 5천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출자금(저축)도 5천 원 이상을 납부한다. 출자한 만큼의 ‘무이자 대출권’을 갖는다.

* 출자조합원: 출자조합원은 조합비(운영비) 납부 의무는 없고, 매월 5만 원 이상의 출자(저축)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출자(저축)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단체조합원: 단체조합원은 매월 조합비(운영비) 5만 원 이

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희년은행과 다양한 공동사업(생활 경제교육공유, 청년 주거 및 고금리 지원 대출)을 진행한다.

- 희년은행 핵심사업

희년은행은 모여진 무이자 출자 자본을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하고자 한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희년은행 핵심 사업을 통해 청년의 부채문제와 주거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어갈 단초를 제시한다.

① 빛내는 청춘에게 빛나는 희년을

: 고금리부채 청년 무이자전환 대출 사업

희년은행은 고금리 부채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및 교육과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원한다.

② 지.옥.고 탈출 프로젝트

: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 사업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을 진행한다.

③ 기본조합원 대출

: 저축한 만큼 쌓이는 무이자대출권리

기본조합원에게는 저축한 만큼의 무이자 대출권이 나온다. 저축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커지는 1년 무이자 대출권, 2년 무이자 대출권을 매달 확인하며 삶의 안정망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ex) 1년간 100만 원 희년은행 기본조합원 저축 유지시:

1년 후 100만 원 인출가능 + 1년 후 최대 100만 원 무이자 대출권

- 희년은행 주요현황

희년은행은 2016년 4월 29일에 출범하여 2018년 9월 13일 현재 조합원 406, 출자금 273,192,810원이 모였다. 모인 출자금으로 지금까지 고금리 무이자 전환대출 누적 25,529,256원 실시했다. 공동주거지원 누적대출액은 40,000,000원, 기본조합원 누적대출액은 4,400,000원을 달성했다. 희년은행은 다양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무이자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 땅의 청년들이 회복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① 희년은행의 안정성 확보노력

희년은행은 금융인 및 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있는 관리 감사,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감사 시스템>

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감사위원회는 희년은행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사하여 희년은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관계기반 대출심사 시스템>

희년은행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관계 형성 후 고금리청년들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자의 자격과 대출금액의 적정 관리를 위해 금융인으로 구성된 대출심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대손준비금>

2018년 700여만 원 + 대출금 0.5% 누적

희년은행은 대손준비금을 별도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을 책임 있게 보호한다. 대손준비금은 매 대출시 대출금의 0.5%를 대손준비금 항목으로 누적시켜 손실에 대비한다.

* 대손준비금

대출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시 확보하는 자금,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② 고금리전환대출지원 프로세스

희년은행의 고금리전환대출지원은 모두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희년은행의 대출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모두 기존 조합원 및 단체 조합원 관계망에 연결된다. 또한 지원 대출을 받는 청년은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금리 청년들이 지원 대출(최대 300만 원)을 마중물 삼아 안정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금리 과다 채무자(금리 20%이상, 부채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사)희망만드는사람들과 협력하여 채무조정, 재무관리를 병행한다. 500만 원 이상의 고금리 과다채무자이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사)희망만드는사람들의 전문가 채무조정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게 한다. 이후 사후 재무보고서를 통해 지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채무자에게는 보다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무이자대출을 통해 재무관리 및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희년은행은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다.

③ 청년생활경제교육 진행

희년은행이 자조금융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청년이 새로운 사회혁신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출 지원뿐 아니라 청년의 삶을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이 절실하다. 2016년 희년은행은 우선 청년의 주거문제와 보험관련 생활경제매뉴얼 제작해 희년은행 조합원 경제교육에 활용하였다. 희년은행은 지속적으로 재무상담, 부채, 보험 및 소비강의 등을 기획해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희년은행의 목표: 사회적 금융을 통한 희년생태계 조성

희년은행은 자본이 일정 정도 쌓이면 고금리 전환대출, 공동주거지원 대출뿐만 아니라 토지가치공유의 다양한 실험인 사회주택, 공동체토지신탁, 토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 자본을 빌려주어 대안적 가치가 실현되고 다시 자본이 선순환 되는 ‘희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은 관계금융의 지속적 확장을 통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규모화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각 사

업별 임팩트 지점을 구상하고 사업별 특색에 맞는 적정규모의 자본형성 목표와 성공적인 사업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갈 파트너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의 단계적 임팩트 지점 예시



희년은행의 대안적 자본흐름이 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모델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거점을 형성되는 것은 앞으로 희년은행의 중요한 목표이다. 거점 지역의 지방정부, 교회 및 지역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지역의 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꿈을 그리고 있다.

5. 희년사회를 향한 첫 걸음, 희년은행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금융화 되어있다. 당장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현금은 대부분 예금통장에 입금되어있다. 자동차 구매, 주택 구매까지 할부, 모기 지론을 이용하여 소비가 이루어진다. 금융은 거대자본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손쉽게 접하고 있는 신용카드, 은행들은 공익기관이 아니다. 철저히 이윤을 쫓고 있다. 규모화 된 금융자본이 과도한 수익률만을 쫓다가 유동성의 위기가 오는 것이 경제공황이다. 당장 대출해서 집사라고, 대부업체에 전화만 하면 바로 현금을 준다는 광고가 쉽 없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현대인들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대부업체에 전화를 한다. 거대자본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와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

희년은 우리의 일상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의 변혁을 꿈꾸게 한다. 그러나 좀처럼 현실의 변화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일부 소수의 외침과 실천이거나 실현가능성과 동떨어진 거대담론을 외치는 변혁 운동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작은 희망과 작은 실천이 누적되어 새로운 대안운동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제도적 변혁에 이를 수는 없을까. 희년은행의 꿈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나는 이치와 같이 무이자 저축 자본을 통해 하나하나 청년들의 삶의 회복시키는 발걸음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믿는다.

무이자 전환대출을 통해 부채의 노예가 된 청년들의 존엄한 삶을 일깨우고 무방비로 끌려 다니던 일상의 소비생활을 점검하여 주체적인 삶으로 새롭게 정비한다. 변화된 우리의 일상은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 소비, 대안 저축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희년은행이 생활경제교육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 실천과 희망이 모여 연대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희년사회를 향한 우리의 도전의 영역은 커진다. 마치 자본이 모이면 모일수록 수익률과 안정성이 높아지듯이 우리의 희년실천은 산개되지 않고 더 큰 희년의 꿈을 향해 역량을 누적시킬 수 있다. 무이자 저축이라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희년은행의 걸음은 우리의 자본주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이어진다. 문화의 지속가능한 변혁의 꿈은 제도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룩처럼 번지는 하나님 나라운동이다.

희년은행 선언문

가장 청춘이어야 할 청년의 삶에서 청춘의 기상이 거세되고 있다. 푸르름과 싱그러움, 강인함과 열정을 상징했던 청년은 어느덧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어가고 있다. ‘지옥고, 청년의 방’이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은 오늘의 청년주거빈곤의 현실을 보여주며, 오늘의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내집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넘어지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다. 아니,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오뎝이처럼 일어나는 곳이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산업의 핵심기관인 ‘은행’은 절대 시들지 않는 꽃이다.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하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애쓰다 은행이 무너지더라도 정부는 청년과 노인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살려낸다.

심장은 인체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가득 담긴 신선한 피를 공급하여 생명력있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기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살려낸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역시 사회 구석구석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경제의 피인 돈을 순환시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살림살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은행은 어떠한가? 돈이 가장 필요한 곳보다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흘려보낸다. 신체의 가장 끝부분인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지 못하면 신체 곳곳의 조직이 점점 괴사하듯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돈이 돌지 않는 금융시스템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괴사상태로 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 사회의 흐름과 청년들의 현실은 이러한 금융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1:99 사회를 만드는 금융시스템을 보며 회의어린 체념에만 빠져있지 않으려 한다. 청년 스스로의 저축과 청년들의 삶에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기성세대들의 무이자 저축을 통해 희년은행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가 저축한 돈은 고금리-무이자전환대출과 공동주거지원대출을 통해 고금리부채와 주거빈곤에 시달리던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꾸어 갈 희망을 준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희년은행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려 하는 빛내는 청년들에게 빛나는 희년을 꿈꾸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에 희년은행의 돈을 흘려보내려 한다.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하는 공동체토지신탁, 토지협동조합, 사회주택 등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실험에 희년은행의 돈을 흘려보내려 한다.

희년은행 조합원들의 무이자저축은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저축, 이 땅을 회복시키는 저축이 되어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희년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저축을 통해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헬조선의 청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리 간절히 소망하며 희년생태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성영

희년함께 학술기획팀장.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품고 희년의 꿈을 꾸는 동지들과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희년사회를 오늘 여기서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신나는 모험’이라 여기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교회청년들의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내수동 교회 & 희년은행 프로젝트 경과보고 -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I. 들어가는 말

2016년 4월, 무이자은행 희년은행이 출범했다. 시대의 주인공이어야 할 청년들이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청년부채탕감운동’이 무이자은행 희년은행의 출범으로 이어진 것이다. 희년은행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회복을 목적으로 재무상담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무이자저축을 통해 조성된 자본으로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로 전환대출 해주고 있다. 실제로 빠듯한 소득에 매달 이자만 갚아나가던 청년들이 무이자 전환대출을 이용해 원금을 갚아나가며 재무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무상태를 직면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습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작고 느린 변화지만 희년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희년은행의 초점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무이자 은행은 십시일반의 무이자 저축액이 모여 한 사람과 공동체를 살려나간다.

2018년 1월 시작한 내수동교회&희년은행 프로젝트는 희년은행과 내수동교회와의 공동프로젝트이다. 내수동교회는 교회 내 ‘희년선교회’ 모임을 신설해 교회 공동체가 희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희년은행과 연결되었다. 희년선교회 성도들은 희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교회 내 부채 청년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및 회복의 길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교회 내 역량을 모아 교회 자체적으로 자조금융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희년은행은 그동안 부채탕감 및 무이자 은행의 설립 및 운영의 노하우를 내수동교회에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내수동교회 청년들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상담 및 대출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희년은행의 재무상담 역량과 내수동교회의 목회적 역량을 결합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기로 했다.

빚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재정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부채를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회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희년은행은 이러한 방향으로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무상담의 제공 및 이후 내담자의 재무상태의 개선을 확인하고 내담자와 동행하는 멘토 역할을 기획하였으며 교회 내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내담자의 전인적 회복의 가능성을 도모했다.

II. 현실 인식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가 바로 ‘청년실신’이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가 합쳐져서 생겨난 말이다. 경기불황과 함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세태를 빗댄 말인 것이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는 학자금 이자대납, 전환대출 등의 다양한 청년구제 프로그램을 내놓고는 있지만 낮은 취업률과 저소득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청년들의 시름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림1〉 청년실신



자료출처 : 『JTBC 뉴스룸』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은 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업률인 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8.8%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가운데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표1〉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16. 12월	17년 9월	10월	11월	12월
· 실업자(만명)		86.7	93.5	89.6	87.4	91.5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0.1)	(-5.1)	(-2.7)	(2.0)	(4.8)
전체실업률(%)		3.2	3.4	3.2	3.2	3.3
청년층	15-29세	(8.4)	(9.2)	(8.6)	(9.2)	(9.2)
	25-29세	(8.4)	(9.2)	(8.4)	(9.4)	(9.0)

* 자료출처 : 통계청, 『2017년 12월 고용동향』, 2018. 1. 10. 배포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생활비로 나가는 고정비는 불변하다보니 청년들은 쉽게 부채에 노출된다. 저소득, 부채문제의 양상은 취약 청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⁶⁾에 따르면 30세 미만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이들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90만8000원에서 2014년 81만 원, 2015년 80만6000원으로 떨어지더니, 2016년은 78만1000원으로 사상 처음 80만 원에도 못 미쳤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는 2,385만 원으로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전년대비로는 41.9%가 늘어난 것이다. 2017년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에 비해 30세

6)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12. 20. 배포

미만 가구주는 전년대비 무려 41.9%나 증가했다.

취약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회복의 길이다. 통계로 나타난 지표는 이들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이 녹록치 않을 뿐 아니라 당장의 속 시원한 해결책도 요원해 보임을 말해준다. 사회구조개혁에 입각한 재원마련과 지속가능한 복지혜택이 절실하다. 당장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취약 청년들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도 시급하다.

Ⅲ. 내수동교회&희년은행 부채탈출 프로젝트

1. 배경

오늘날 청년들의 부채문제는 교회 내 청년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다만 교회 내 공동체에서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부채문제를 쉽게 말하지 못한다. 자신의 부채문제를 수치심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고립되고 방치된 부채문제는 더욱 깊어가는 경우가 많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부채문제를 힘겨워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나누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소리 없이 울며 호소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은 2018년 희년은행과 내수동교회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요한 계기였다.

부채문제는 재무적 불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그러나 단순히 재무적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희년은행이 부채문제의 비재무적 요소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부채문제를 방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계속된 좌절감이다. 지금의 환경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더라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 깊은 절망감을 맛보고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지도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부채문제가 심각한 청년들은 가정의 부채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부채문제가 자신의 부채로 전가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자신은 부모님의 부채로 짓눌려 자신마저 부채문제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청년들은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맛보아야만 한다.

교회 공동체는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지향한다. 재정 문제와 부채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아래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누적된 패배감으로 젖어있는 자신의 부채문제를 나누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한다. 단순히 부채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하시키는 내면화의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회복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많은 교회 청년들이 무거운 마음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홀로 절망하고 있다.

내수동교회와 희년은행은 교회 내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희년은행은 부채청년을 직접 만나 재무상담과 현금흐름 관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수동교회는 청년들과의 목회적 관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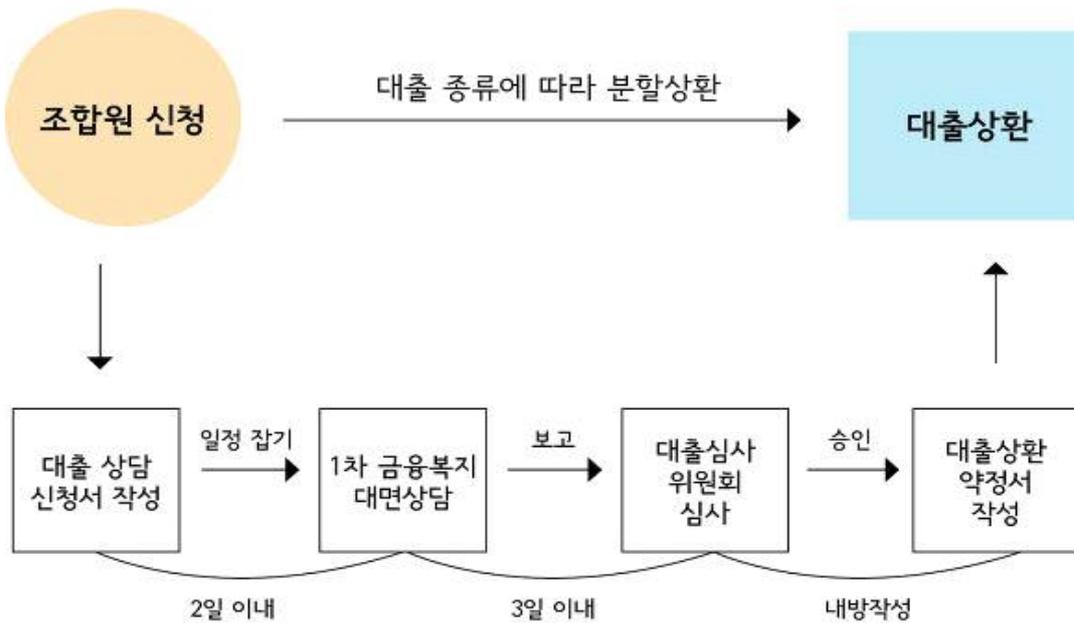
2. 세부과정

희년은행은 무이자 저축으로 모은 자본을 고금리 부채를 가진 청년에게 무이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만 원 미만의 총 부채금액을 가진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희년은행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내수동교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대출상담신청을 받아 구체적으로 내수동교회의 추가지원여부를 기획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

<희년은행 대출이용>

구분	기본조합원 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공동주거 지원대출
금액	본인 출자금 100%	최대 300 만원	최대 5,000 만원
조건	기본조합원 가입	기본조합원 가입	단체조합원 가입
기간	36개월 이내(유예기간 3개월 포함)		24개월 이내

〈고금리 전환대출 진행과정〉



1) 고금리 전환대출신청자 접수

먼저 내수동교회 청년부에서 희년선교회의 이번 프로젝트 설명이 있었다. 청년들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2018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총 9명이 상담신청을 해주었다. 9명 중 3명은 내수동교회 청년부 지인이나 가족이었고 6명은 모두 내수동교회 소속 청년들이었다.

2) 1차 재무상담 진행

1차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다. 먼저 소득과 소비현황을 통한 현재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부채 규모와 스토리를 확인한다. 부채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비재무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수동교회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신청자 중 3명 역시 내수동교회의 지인이나 가족으로 프로젝트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여 9명 모두 1차 재무상담을 진행했다. 1차 재무상담결과 한 청년은 부채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고 취업 전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지원한 케이스였는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해 추가 상담 및 지원을 중단하였다. 다른 한 명은 내수동교회

청년의 어머니가 지원한 경우여서 이번 프로젝트 말고 희년은행 차원에서 지원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는 9명 중 7명으로 정해졌다.

3) 2차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 진행

지원 결정된 7명의 청년은 부채규모가 학자금 부채를 포함해 모두 천만 원 이상이였다. 희년은행은 자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청년은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7명의 청년은 모두 대상자였다. 재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인 '희망만드는사람들'에 의뢰하여 모두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 진행을 실시하였다.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은 1차 재무상담 결과를 토대로 신용조회를 통한 면밀한 부채현황을 점검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을시 채무조정 방법을 강구한다. 청년들은 주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의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햇살론 등의 다수 금융 복지 지원해당여부를 검토한다.

7명 모두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현금흐름이 악화된 케이스는 한 건이었다. 그 외 6명은 현재 소득 및 소비의 수준을 잘 유지하고 적극적인 소득 증대 노력을 할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 없이도 현재의 부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부채를 채무조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갚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소비습관 개선 및 부채관리 능력을 통해 상환하게 되면 자존감이 증대되는 것 외에도 지속가능한 재무관리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7명 중 다수의 청년이 부채문제가 부모님의 부채문제와 연동되어 있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 가운데 가족문제가 매우 큰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4) 희년은행&내수동교회 솔루션 회의

1차 재무상담, 2차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 결과를 가지고 희년은행&내수동교회 솔루션 회의를 진행했다. 희년은행 프로젝트 실무진과 내수동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 희년선교회 책임자들이 만나 7명 청년의 부채문제 해결 솔루션을 진행했다. 내수동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는 청년들의 목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희년은행은 1차, 2차 재무상담을 통한 재무적 정보를 확인한 상태였다. 재무상담 역량과 목회적 역량을 결합해 해당 청년의 지속가능한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7명 중 1명의 케이스는 당장 현금흐름의 악화가 심각해 채무조정 전문 상담사의 조언대로 신용회복위

원회의 청년햇살론 전환대출을 신청 안내하였다. 해당 청년은 청년햇살론의 지원대상이 되어 부채상환 비용이 상당 감소되어 현금흐름이 안정되었다. 나머지 6명의 청년은 이후 현금흐름을 체크하여 지속적으로 부채문제 해결의 길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5) 현금흐름 동행체크

희년은행에서는 솔루션 회의 이후 3개월간 7명의 청년들을 매달 전화와 온라인으로 현금흐름을 확인하였다. 청년들이 소득과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닫고 지속가능하게 자신의 재무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솔루션을 제공받고 인지적으로 하는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습관 개선 및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6) 3차 재무상담 진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7명의 청년을 상담사가 직접 만나 환경적, 심리적 요소 가운데 변화된 지점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부채의 규모 및 현금흐름의 개선정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현금흐름이 매우 악화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은 청년은 현금흐름이 매우 안정되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회복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나머지 6명 가운데 2명은 소득 수준은 여전한데 소비지출 부문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희년은행&내수동교회 지원방법 회의

3개월의 현금흐름 변화추이, 3차 재무상담결과를 가지고 희년은행 실무진, 희년선교회 책임자들, 내수동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다시 만났다. 내수동교회는 자체 예산으로 부채청년을 돕기 위해 약 1천만 원 가량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7명의 청년이 지속가능하게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8) 지원방법 검토

① 채무조정 상담지원

현금흐름이 악화된 2명의 청년은 소득증대의 어려움이 확인되었고 소비습관 개선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 청년들은 채무조정 대상자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② 생활비 지원

현금흐름이 악화된 2명 이외에도 매달 부채상환으로 빠듯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다. 휴대폰 비용이 밀려 통신이 중단된 청년도 있다. 이 청년들에게는 전환대출 이전에 당장의 긴급생활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③ 두배통장 지원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부채의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한 예비비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 스스로 저축해서 적극적으로 부채를 탈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돕기 위해 저축습관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자신이 저축한 만큼 지원해준다면 정기적 저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기저축이 습관화 되면 부채탈출이 가속화된다.

④ 여행비 지원

7명의 청년가운데 6명이 자매였다. 이중 일부 청년들은 내수동교회 청년부 내에서 서로 부채문제를 오픈하고 나누는 관계로 진전되었다. 부채문제에 매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 재무상담을 통해 개인문제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부채문제를 오픈하고 부채에 대한 과도한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채문제가 고립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과 대항해 회복의 과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적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희년은행 여성 상담사와 의사를 밝힌 자매청년들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⑤ 재무상담 지원

두배통장이 지원되는 3개월의 과정에서 실제로 현금흐름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7명의 청년들을 매달 재무상담하는 지원이 요구되었다. 지속적인 관리와 멘토역할을 통해 청년들의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IV. 나가는 말

부채청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고자 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수동교회&희년은행 프로젝트는 부채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에게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다수의 교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사

레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청년들의 부채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적 돌봄의 회복이다. 마음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멘티 관계가 형성된다면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령 청년들의 소득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 자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교회 내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강의를 통해 알리고 교회 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부채탕감과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내수동교회&희년은행 프로젝트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존재를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희년은행은 향후 지원방법 결정 및 지원 결과까지 성심성의껏 교회의 희년실천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내수동교회와 같은 실천운동에 고무되어 교회 내 청년들의 회복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별지1]

희년은행 소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희년은행을 모토로 시작한 희년은행은 희년함께의 무이자대안은행입니다. 조합원의 무이자 저축을 자본금으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대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빛내는 청춘에게 빛나는 희년을!: 고금리부채 청년 무이자 전환대출 사업

희년은행은 고금리부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 및 교육과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원합니다.

2) 지.옥.고 탈출 프로젝트!: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사업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을 진행합니다.

[별지2]

내수동교회&희년은행 프로젝트 소개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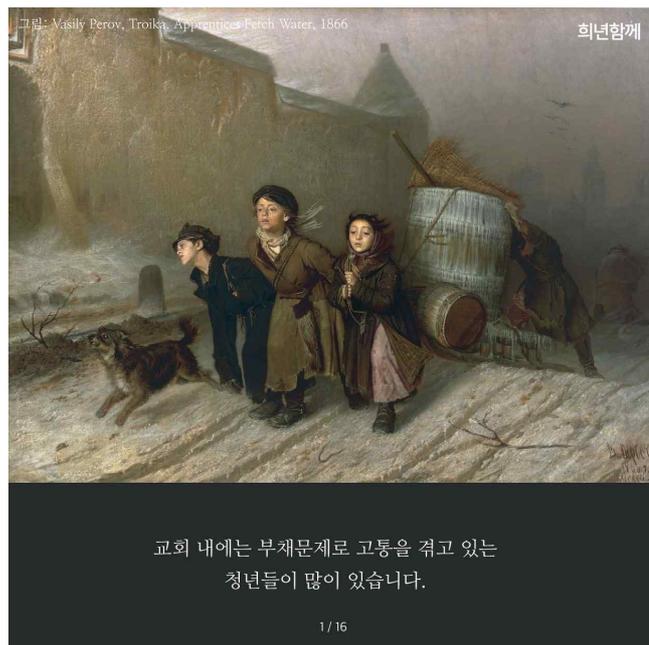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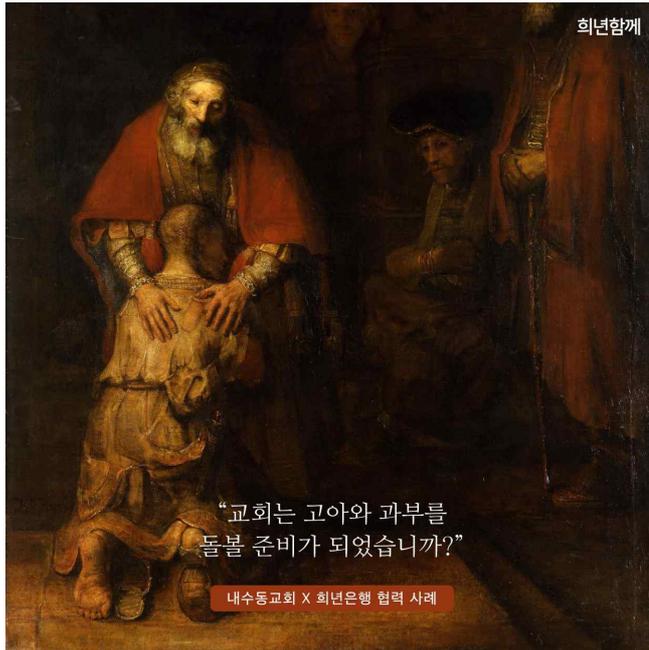


그림: Vasily Perov, Nikita Pustosviat Disputing about faith, 1881

희년함께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2 / 16

그림: Pavel Kuznetsov, Push-Ball, 1931

희년함께



내수동교회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부채탕감과 대안은행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3 / 16



내수동교회는 희년은행 단체조합원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 내 청년 부채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 / 16



청년부에 희년은행을 소개하며
희년은행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였습니다.

6 / 16



부채를 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현금흐름을 확인,
내담자의 환경 및 심리적 어려움 공유합니다.

7 / 16



채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코칭하게 됩니다.

8 / 16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내수동교회 목회자와의 협의 시간을 갖습니다.

9 / 16



2차 재무상담 이후
3개월간 재무상태 멘토 역할을 지원합니다.

10 / 16



이후, 추가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 검토합니다.

11 / 16



현재 내수동교회 청년부 내에는
자조금융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12 / 16

희년함께

내수동교회 청년부와 희년은행의 협력사례는
구체적인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3 / 16

교회 공동체의 목회적 관계와
희년은행의 재무 회복이 함께 결합되어
청년의 온전한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의 부채 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희년은행은 검증된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인
회복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례발제 2 : 예수마을교회

이파람 (예수마을교회 청년부 목사)

2018함께하는교회 예수마을(약칭 ‘예수마을교회’) 희년마을기금 사례

1. 2년전 ‘희년마을기금’의 시작과 그 의미

(*월간 복음과 상황 319호(2017년 6월호)에 실린 기사를 허락 받고 실었습니다.)

청년들이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

- ‘희년마을기금’ 운영하는 예수마을교회 장승익 목사·이파람 전도사 인터뷰 -

서울 행운동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는 지난해(2016년) 12월부터 청년부를 대상으로 ‘희년마을기금’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부원 중 어느 누구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면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한도(연 600만 원) 내에서 희년마을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교회는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한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 청년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내 간편한 ‘무이자 무담보 자율상환 대출’이다.)

서울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예수마을교회는 설립한 지 올해로 18년이 됐다. 일반부 80-90명, 청년부 40명, 영유아·청소년 70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한다. 일반부 성도 대부분이 청년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특징이다. 희년마을기금은 청년들의 필요와 전 교인의 물심양면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만들었다. 정관상 정기 총회 및 가족 회의에서 매년 담당 교역자가 기금 운용 상황을 보고하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교회 정관을 따른다.

기금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열 번의 신청과 지원이 있었다. 부임 초기부터 ‘예수, 희년, 하나님 나라’를 목회 중심에 둔 장승익(53) 담임목사는 희년마을기금에 대해 “우리 교회 특성을 살린 희년 실천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목사와 청년부 담당 교역자인 이파람(36) 전도사에게서 희년마을기금 이야기를 들었다.

- 교회 자체적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희년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승익(장): 작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망설였는데, 부족하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교회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내용일지도 몰라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의 수혜 대상은 등록 청년 교인입니다. 운영은 희년마을기금 정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정관은 청년들이 토론을 거듭하여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놓고 거듭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토론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파람(이): 목사님 말씀처럼 희년마을기금 정관은 위에서 계획하고 하달된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비슷한 경험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정관을 만들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비슷한 기금들을 신청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를 평가받아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정관을 만들었지요. 청년들의 이러한 마음과 전 교인들의 희년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청년들에 의해 앞으로도 더 보완되고 확대될 수 있고요.

- “희년에 대한 공감대”라고 하셨는데요.

장: 이 기금의 목적이 ‘예수, 희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공동 비전이지요. 제 목회 철학이자 우리 교회 연구소 이름(예.희.하 연구소)이기도 해요. 막연히 희년이라고 하면 ‘난 토지가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노예 삼았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땅에서 희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오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10주 정도 시리즈로 예수, 희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성도들에게 피부로 잘 가닿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희년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희년실천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일상에서의 희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사하게도 많은 교우 분들께서 예수, 희년, 하나님 나라라는 목회 원리에 동의해 주시고요.

- 지금 우리에게 희년이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지요. 희년을 실천하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지적한 에피투미아(ἐπιτιμία), 우리 안에 잠재하는 욕망을 들여다보아야 하고요. 항상 돈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본능 말이지요. 희년을 실천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 욕망을 채우려 하는 본능이 공존하니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 욕망을 말씀하셨는데, 교우들 중에 청년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분은 없나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와 목사님, 청년부장님 이렇게 세 명이 기금운영위원인데 아직 그런 말씀을하신 분은 없었어요. 기금 관리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희년 정신을 기본으로 하면, 우선 청년들을 믿음으로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지요. 정관에 나와 있다시피, 희년마을기금 신청은 본인 스스로 이런 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외에 얼마의 신청 액수만 위원에게 요청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먼저 청년들을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청년들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오신 성경의 희년 정신과 희년마을기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도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 가고, 교회는 더욱 신뢰를 잃어 가는 시대에 청년이 명백한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요. 교회가 먼저 그러한 청년들을 품고 신뢰한다면,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믿음을 갖게 되어 교회의 청년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 설령 도덕적 해이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일단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돈을 꺾준 적이 꽤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돈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있는 만큼 주고 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인데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물질의 경우 이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부와 청년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성장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체에 공유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힘이 꽤 큰 것 같습니다.

- 청년들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기금 같네요.

장: 비슷한 장치를 두고 있는 몇 교회의 정관을 찾아보니 금액이 더 적고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금 사용을 청년으로 한정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언제라도 돈이 급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와 전도사님이 청년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중인 학생도 있고,

때론 집의 월세 내기도 벅찬 경우도 있어요. 만약 당장 내일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언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겠어요. 희년마을기금은 요청이 오면 두말없이 바로 지급합니다.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최대 6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초과 금액의 경우는 청년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물론 기금 이용 후에 당사자 개인 상황이 나아지면 상환해서 다시 기금을 채울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겨두는 거지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성경의 희년과 오늘날 우리 일상을 연결 지을 때 결국 돈과 건물로 좁혀진다고 봐요. 당장은 희년마을기금의 운영을 청년들로 한정하고 있지만 형편이 된다면 전교인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나요?

장: 우리 교회가 청년 중심으로 세워진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임자인 이승장 목사님이 기독교청년대학생 운동을 하시기도 했고, 청년 목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늘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청년들이 주최를 해서 바자회를 가졌는데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돈이 모였어요. 교인들이 물건도 많이 사주시고, 기금 계좌로 후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목회 지침 중 하나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인데도, 성도들이 기금으로 헌금도 많이 하셨고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지요.

-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이 많은가요?

장: 우리 교회에는 부자도, 사업하는 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오고서 교인들 사정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시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몇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사실 돈의 여부보다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년 말, 희년마을기금을 시작했던 그때가 이런 일이 시작되기에 무르익었던 시점 같습니다. 희년을 중점으로 두고 목회해왔고, 예.희.하. 연구소 세미나에도 교회 어르신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이: 희년마을기금은 청년들 안에서 먼저 발생한 이슈기도 해요. 교회가 외부 선교와 구제는 익숙하게 많이 하는데, 그러는 사이 정작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제의 손길을 뻗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대략 형편은 알고 있는데 직접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희년마을기금은 사랑의 통로가 되었어요.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

회를 하고 정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청년부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좋은 자극이었어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작하고, 어른들에게는 청년들을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서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 교회가 일심동체네요.

장: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예요. 청년부도 일반부도 참 건강한 분들이지요. 목사가 집도 팔라고 말하고, 예언서 말씀을 그대로 다 설교해도 성숙하게 소화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동료 목사들 중에는 예언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로부터 ‘그런 설교 하지 말라’거나 ‘중복좌파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다더군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예언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급진적인 분이 또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예언서 설교를 하고, 다소 비판적인 설교를 하면 때론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성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스로 성숙하게 소화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희년마을기금 신청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너무 숙고하는 건 아닌가 싶은 부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금을 신청해도 될까’ 하고요.

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시작된 기금이기에 청년부에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편하게 신청하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넓게 형성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모두가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당사자라고 해도 기금을 사용할 생각을 하면 미안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필요한 청년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니 편히 사용하고 희년의 정신을 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그렇게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희년의 좋은 경험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후 어디서 어떤 영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든지 희년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희년마을기금이 청년들이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장: 그럼요. 할 수 있다면 공동생활 건물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하면 좋을 텐데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경우에 한창 때 자기 비전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이자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다들 모이기를 잘하거든요. 동시에 희년마을기금을 통해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서로에 대한 친밀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나 할까요? 시대와 현실의 한계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다양하게 꼭 공동체성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희년마을기금을 운영하며 겪는 교회 전체 분위기는 참 고무적이예요.

복음과 상황 319호(2017년 6월호) 커버스토리 중에서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70>

2. 지난 2년간 ‘희년마을기금’의 운용과 미래를 위한 과제

1) 기금 재원의 확보

지난 2년간 희년마을기금을 운용하면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돈을 이 기금을 통해 도움 받는 청년들을 볼 때 보람이 있고 감사함을 느낀다. 많은 경우 청년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돈의 필요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삶의 긴급한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무리한 빚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희년마을기금의 실제적인 도움과 의미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이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바로 취업이 되고, 삶이 안정되고, 어려웠던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긴급한 필요에 희년마을기금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유롭게 도움 받은 기금 금액을 상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동안 기다려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재정을 일정부분 이상 확보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이 지속됨에 따라 생기는 기금의 고갈과 상환의 지연에 대한 기금 재원의 감소가 지속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 청년부채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

본 교회의 희년마을기금은 현재로서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 기초생활에

긴급한 돈의 필요가 생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필요의 도움 말고도,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긴급한 필요의 도움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사용에 있어서 일부분이다. 이미 눈덩이처럼 빛이 쌓여버렸다던지, 기초생활 외에 학업과 사업, 사회생활을 위한 필요가 있다던지,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 살면서 소비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부분이라던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다. 희년마을기금 운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고 통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돕고 있는 다양한 과정들과 프로그램들이 잘 공유되고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3) 청년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도와야 하는 지체라는 인식의 확대

희년마을기금은 청년들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기금을 통해 생긴 청년들을 향한 관심이 지속되고 좀 더 폭넓어 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적 도움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진로, 신앙 등 삶의 전반적인 도움과 지지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청년들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본다.

3. (참고) 예수마을교회, ‘희년마을기금’ 정관

예수마을 청년부 희년마을기금 정관 (2017.6.25.)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예수 희년과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마을의 공동 비전에 따라, 예수마을 공동체 청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를 위한 기금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기금의 이름은 “희년마을기금”이라고 한다.

제3조(기금 운용의 원칙) ① 신청자는 신원을 밝히지 아니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예수마을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의 신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제4조(신청 자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마을 가족회의 구성원 자격 및 청년부 회원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단, 예수마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가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는 위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 ① 신청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청년부 결의가 있는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월별 10만원 이하의 지원금은 갚지 아니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자, 기한 및 기타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갚도록 한다. 교회는 상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 및 심사) ① 신청은 월별로 청년부 담당 교역자에게 한다. 기한이나 신청서 서식 등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청년부 담당 교역자는 신청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을 승인한다. 단, 신청한 금액에 비하여 기금이 모자란 경우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달에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을 승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청년부 결의가 없으면 지급을 승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기금의 취지 및 운용 방식을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있으면 청년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지급의 승인을 결의에 부쳐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년부 담당 교역자와 청년부 부장으로 한다. 심사 결과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6조의2 (긴급지원)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면서 청년부 임시총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청년부 임시총회의 추인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청년부 단체카톡방 익명투표(청년부 재적 과반수의 찬성) 등 차후 임시총회에서 추인될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후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방법) 제6조에 따른 신청과 승인이 있는 경우, 청년부 부장은 지원금을 기금 전용 계좌로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기금의 마련) ① 기금은 성도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하며, 예수마을 공동체 및 청년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회는 기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바자회, 모금운동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청년부 부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상황은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정기 총회 및 가족회의에 보고하며, 그 밖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교회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

사례발제 3 :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오종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팀장)

돈에 대한 영적 전쟁

1.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러한 음성을 가끔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대부분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식 시켜 줌으로써 어려운 사안에 대해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 우리의 자율의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근거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독교세계관’ 혹은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물질 만능주의(맘모니즘) 소비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맘모니즘에 근거한 가치관 소비만능주의의 삶이 마치 옳은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무심코 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정에 관해 단순히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되고 투기에 의해서 많은 돈을 가지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우리의 경제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사용인가에 관한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재정에 대한 가치관은 2가지 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돈을 버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인쇄 한다던지, 구제를 한다던지, 선교사를 지원한다던지 하는 일을 대부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맘몬은 헌신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에게 돈을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즉 맘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축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기 까지 합니다.

둘째, 돈을 소비하는 측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기 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회 더 나아가서 나의 재정형편과 관계없이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풍조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미화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거나 우리에게 돈을 관리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돈을 신실하게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돈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따라서 재정에 관한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버는 측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마태복음 6장19절 ~ 21절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을 하늘에 쌓아 두라)

둘째, 돈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돈이 갖는 정사와 권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돈이 갖는 권세와 정사로부터 자유로와 져야 합니다.

6. 재정에 대한 온전한 청지기

우리는 재정에 대한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에 관한 균형잡힌 가치관을 장립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 온누리교회 사역

온누리교회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해마다 분기별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5년부터 외부 재정,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많은 채무로 힘들어 하는 청장년들이 재무적, 법률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부채탈출119’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가계 부채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탈출1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장년들 각자의 처해있는 형편에 따라 단순한 재무상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구조 제도, 법적인 구제 방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긴급구조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해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대여금원 전부가 회수되었다. 2015년도부터 부채탈출119를 통해 약 400명의 청장년들이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둘째, 2017년 하반기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하반기에 약 200명 2018년 상반기에 약 300명의 성도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 재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재정관리 심화과정을 개최하여 총 6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자녀교육,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미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나누어 변제하고, 더 이상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신용카드사용과 소비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례발제 4 : 서향교회

김지섭 (고엘뱅크 BANK장)

고엘뱅크 정관

전 문

자본주의는 금융을 통해 작동한다. 금융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리를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를 묶어매는 돈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 생명을 살리는 금융으로써 고엘뱅크를 설립 함으로써, 이 고엘뱅크를 통해 청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안 전망을 만들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서향교회의 부설로서 고엘뱅크(이하 조합)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1. 관계에 기반한 신용협동조합의 정착
2. 일정한 금액을 출자한 상호부조의 실현
3. 실제적으로 돈을 공유함으로써 참 공동체의 설립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향교회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출자금 적립 사업
2. 금융상호부조 사업

3. 생활상호부조 사업
4. 주거협동조합 사업
5. 조합원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동체 사업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변경) 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이 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다. 단, 특별사안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통지사항) 조합의 알림은 단체 조합원의 참여사업, 활동장소 및 공지사항 등이 포함되며, 조합의 통지사항은 전화, 문자, 우편과 조합원 카페, 소셜미디어(SNS), 전체모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8조(자격)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서향교회 등록 교인
2. 이 조합에서 제명된 사실이 없는 자
3. 서향교회의 새 신자 교육을 포함한 조합교육을 받은 자

제9조(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0조(의무)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목적에 따라 운영원칙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3.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조합의 총회, 회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조합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대출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입조합원교육에 반드시 참석

해야한다.

6. 연말 결산시 당해연도의 발생한 손실은 조합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7. 소정의 조합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8. 조합의 대출사업 이용 시에는 운영규정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되,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책임) 조합의 사업부실로 사업을 보전할 경우 조합원의 책임은 본인의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결권·선거권) 조합원은 출자 구좌 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1인1표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탈퇴)

-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서면, 문자, 카톡 SNS등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 ③ 제 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출자금 환급)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환급받거나 인출할 수 있다.

-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을 환급한다. 단, 그 해 사업연도의 출자금 환급으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안될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환급 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준 자
- ② 조합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조합원의 탈퇴 결의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제 3 장 출자와 조합비, 적립금, 후원금

제16조(출자) ① 조합원은 매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1구좌 액수는 5,000원으로 한다. ② 일시납의 출자도 가능하다. ③ 1인당 출자금은 현행 전체 출자금의 5%를 넘지 않는다.

제17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년회비로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건비 및 조합 사업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우선변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사업년도 사업 결산 후 일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일반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금의 20%를 적립한다. 단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0조(후원금 및 후원사업)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해 후원사업을 진행한다.

② 후원금은 조합의 활동과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게 받는다.

③ 후원금은 조합의 운영비 및 출자금으로 사용한다.

④ 후원사업은 바자회나 일일 찻집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⑤ 조합원도 후원금을 낼 수 있고 후원금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21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실시한다.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 한 때
2. 운영위원회 과반수가 요청 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단,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운영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
3. 회계 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자본금의 감소
6. 조합의 해산, 휴업, 합병
7. 조합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8.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9.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총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장은 정관에 규정된 것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다.

제26조(운영위원회) 이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감사, 그리고 자문으로 이루어진다. ① 운영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운영위원, 감사, 자문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여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운영위원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1인에게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위임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5.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고엘뱅크 운영규정의 결정 및 변경.
8. 운영위원, 감사, 자문의 선임 및 해임
9. 기타 대표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

제29조(운영위원의 정수) 이 조합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1명, 3명 이상 5명 이내 의 운영위원, 감사 1명, 자문 1명으로 한다.

제30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은 운영위원과 감사, 자문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직접 투표권한은 다른 위원에게 서면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사무실 운영 및 조합 전반의 사업을 운영한다. 필요시 운영위원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위원의 보선)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보선한다.

제33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이 조합의 운영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겸직) 조합의 운영위원은 사무실 직원과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의 집행

제36조(사업계획과 수입과지출예산)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입과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의 실행) 이 조합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운영을 한다. 단 사업의 변경, 신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

제38조(사업의 보고) 이 조합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 결과를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제 7 장 자산과 회계

제39조(자산의 구분) 이 조합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제40조(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41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조합의 운영경비는 수익의 일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기본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입,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계연도) 이 조합의 사업연도는 서향교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단, 설립년인 2017년은 설립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 이 조합의 회계는 협동조합 회계원리에 따라 기장하고 구분한다.

제44조(결손보전) 이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 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잉여금의 사용) 이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순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거나 제 운영비를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출자금이나 운영비로 전용한다.

제 8 장 해 산

제46조(해산) 이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청산인) 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48조(청산인 의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청산잔여재산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향교회에 환원한다.

제 9 장 보 칙

제50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고엘뱅크 운영규정

* 2018-7-16 규정 변경

1. 제1장

*카카오 그룹이 서비스를 폐지하여 교회 단톡방과 2달마다 한번 열리는 교회 광장에서 공지를 한다.

*모금한도를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 제 5 장 창업지원대출의 신설.

1)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신설한다.

2) 팀당 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정확 해야 하고 인건비와 경비등은 지원 할 수 없고 창업에 소요되는 재료비등으로 한정)

3) 기금의 운영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영수증과 회계보고를 받아서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기금을 회수 한다.

4) 창업회사가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엘뱅크에 조합으로 가입하여 조합비와 출자금(5만원이상)을 내도록 한다.

5) 기 대출과는 별개로 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창업지원기금은 고엘뱅크 가용 자산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상환시점은 협의 하여 정한다.

8) 상황에 따라 대출의 일정 부분을 창업회사에 대한 고엘뱅크의 지분 참여로 할 수 있다.

*2018-8-30 운영규정 변경

제9조 2항 긴급복지지원대출의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제 1 장 사업운영

제1조 공 지

① ~~카카오 그룹을 만들어서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전체 공지 및 사업설명, 상품설명을 조합원에게 공지 한다.~~

교회 단톡방과 2달마다 한번 열리는 교회 광장에서 공지를 한다.

- ② 카카오 그룹에 월 보고서와 년 보고서를 공지 한다.
- ③ 대출 진행상황을 문자 카톡등으로 조합원에게 대출받은 조합원에게 알린다.

제2조 자료의 보관

- ① 조합과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외부로 반출 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현황을 상환현황을 기록하고 조합이 해산하기 전까지 보존한다.

제3조 운영 자금

- ① 운영위원회 운영 자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② 운영위원회 운영 자금은 투명하게 수립 집행하고 회계보고를 년 1 회 공지한다.

제4조 상품의 개발

-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공공부조를 도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상품개발의 아이디어를 조합원의 필요에서 얻을 수 있다.
- ③ 1조합원은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상품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2조합원 요구 상품은 운영위원회에서 총 출자금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출자금의 모금

- ① 2017년과 2018년의 출자금의 최대 모금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 ② 모금 한도인 1500만원이 초과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 ③ 모금 한도를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18년 7월 16일)

제 2 장 대출

제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대출자격) 서향교회 새 신자 교육을 포함한 신입조합원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과 단체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대출분류)

① 일반 대출 : 출자금을 3회 납부한 조합원 개인 출자금의 200% 한도 내 대출로 최장 10개월내 분할 상환한다.

② 긴급복지지원 대출 : 출자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조합원이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운영위원회 면담을 통해 분할 상환한다.

③ 목적대출

출자금 회수와 구좌수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구좌는 5000원이고 1회이다.

1. 목적대출에는 협동응원대출, 결혼격려대출이 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

*협동응원대출 : 3명 이상의 조합원이 자립의 목적으로 가입 후 5개월 이상 모두

출자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 적금 등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게 분기별로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단, 주거비대출의 경우 1인도 가능하며 최고 한도는 500만원 이하이다.)

*협동응원대출에는 주거비마련대출, 선교대출, 기타프로젝트대출이 있다.

*결혼격려대출 : 결혼을 하는 조합원에 한해 진행되는 대출이다.

결혼당사자 두 명 모두 조합원이어야 하며, 두 명 중 한명이 10회 이상 출자한 경우 혹은 두명 모두 5회 이상 출자한 경우 500만원까지 대출한다. 24개월 이내로 분할 상환한다. 단, 2017년에는 결혼당사자 2명이 조합원이고 1회 출자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1인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상환은 협의하여 정한다. 학자금 대출의 총액은 자산 총액의 30%로 제한한다.

2. 목적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자금을 고려하여 대출의 시행 여부를 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목적대출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차입대출 :

1. 주거비마련대출은 금액이 크므로 조합이 차입하여 대출할 수 있다.

2. 차입한 금액은 전세보증금등의 반환등으로 조합원의 사용이 끝나면 채권자에게 고엘뱅크 통장을 거쳐서 즉시 반환한다.

⑤ 창업지원대출 :

1. 운영규정은 제5장 창업지원대출 항목에서 다룬다.

2. 타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할 수 있다.

3. 대출금액은 운영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9조(대출유형 및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1명에 대한 일반대출의 최고 한도는 본인 출자금 200% 이내로 한다.

- ② 조합원 1명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대출은 100만원이하로 한다. 단 최종 대출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상담을 통해 정한다.
- ③ 공동주거비 마련등 조합원들의 협동응원대출은 3000만원이하로 한다.
- ④ 결혼을 앞둔 두 조합원에 대한 결혼격려대출은 최고 500만원 이하로 한다.
- ⑤ 대출금 상환중인 조합원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긴급상황시 대출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민법 5조에 따라 법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조합원은 대출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10조(대출이율) 대출이율은 아래와 같다.

고엘뱅크는 조합원 상호협동과 자조의 원칙아래 모든 대출이자는 0%이다.

제11조(연체의 정의) 본인이 정한 날에 매달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 그 다음날부터 연체라고 본다.

제12조(연체벌점) 연체 3일 이후부터 연체일의 이배수 만큼 대출이 제한된다.(단, 운영위원회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대출가능하다.)

제13조(상환방식)

- ① 모든 대출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조합원 본인의 신청 또는 조합 직권으로 출자금에서 변제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승인시 우선순위)

- ① 총 대출의 규모는 총출자금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 대출 신청 시 대출승인이 지연된다. 단, 주거비마련대출은 예외로 한다.
- ② 일반 대출은 대출자금 수요가 허용하는 한 우선하여 승인한다
- ③ 위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④ 같은 날에 여러 건의 대출신청이 있어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소액대출을 우선 승인한다.

제15조(대출심사)

-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심사를 주재한다.
- ③ 대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과반의 찬성으로 대출을 한다.
- ④ 대출심사는 조합원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공개하고 시작한다.
- ⑤ 대출상당 완료 후 3일 이내에 심사하고 대출을 완료한다.

제 3 장 출자저축(출자적금)

제1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17조(저축자격) 조합원에 한하여 저축할 수 있다.

제18조(저축기간) 기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저축분류)

- ① 일반저축 : 일상적인 적금 1좌당 5만원 또는 예금
- ② 목적저축 : 여행, 결혼 등 목적성 저축을 할 수 있다.
- ③ 목적저축의 개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0조(저축이익)

적금이자 는 본 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저축거치금활용) 전체 저축 금액의 50%이하를 운영규정 제2장 제9조에 있는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출자금 100만원 저축 40만원 이면 대출가능금액은 200만원+20만원

제22조(저축의해지) 조합원이 해지를 통보한 30일 이내에 자금을 반환한다.

제23조(저축의반환) 마지막 만기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반환한다.

제 4 장 금융복지상담

제24조(목적)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조합원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25조(금융복지상담)

- ①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은 대출심사 전, 후 재무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당연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 ② 조합에서 위촉한 청년재무상담사가 상담을 진행 한다.
- ③ 상담관련 운영과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창업지원대출

- 1)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신설한다.
- 2) 팀당 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정확 해야 하고 인건비와 경비등은 지원 할 수 없고 창업에 소요되는 재료비,교육비 자제비 등으로 한정)
- 3) 기금의 운영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영수증과 회계보고를 받아서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기금을 회수 한다.
- 4) 창업회사가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엘뱅크에 조합으로 가입하여 조합비와 출자금(5만원이상)을 내도록 한다.
- 5) 기 대출과는 별개로 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6) 창업지원기금은 고엘뱅크 가용 자산에서 50% 이내로 한다.
- 7) 상환시점은 협의 하여 정한다.
- 8) 상황에 따라 대출의 일정 부분을 창업회사에 대한 고엘뱅크의 지분 참여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고엘뱅크 총회 운영규정

의사진행순서

1. 정족수 확인
2. 개회 선언 및 의장 인사
3. 전자 의사록 낭독 및 승인
4. 운영보고 승인
5. 감사보고 승인
6. 의사 일정 확정
7. 의안의 상정·심의·의결
8. (선거관리 규약에 의한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9. (선거가 있었을 경우) 당선인사
10. 기타 사항

사례발제 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설성호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팀장)

청년부채ZERO캠페인-5차 내용 및 결과

1. 들어가기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015년부터 양극화해소를 위한 운동들을 펼쳐왔으며, 2017년에는 향상교회의 후원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이용하여 부채해방컨퍼런스와 부실채권소각운동, 부채소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청춘희년네트워크⁷⁾의 사업을 이어받아 ‘청년부채ZERO 캠페인-5차’를 진행하였다.

기윤실은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청년부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 혹은 무분별한 소비 습관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사회 구조와 현상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청년실업문제, 저임금과 과노동, 약탈적 금융사회까지 청년들에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지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다. 실제로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수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20대를 시작하며, 대학졸업 이후에도 과도한 스펙 요구와 취업의 문턱마저 높아 안정된 수입을 가져오기 힘든 구조이며, 결혼 자금 및 내 집 마련 등으로 인하여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 가고 있다.

청년부채ZERO 캠페인-5차는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전환대출을 통한 재무지원과 동시에 채무약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부채상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교육 그리고 더바깥모임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청춘희년네트워크는 2015년 4월, 청년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7개의 단체(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복음과 상황,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어람 M, 희년 함께 이상 7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합단체로서, 2017년까지 4번의 청년부채 ZERO 캠페인을 펼치는 등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8) 더 바르게 쓰는 짝꿍들의 모임

2018년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20명을 모집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일정은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더바짝모임(월 1회, 3개월)을 통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힘이 되어주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2. 내용

청년부채ZERO 캠페인-5차는 약 4500만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2017년 향상교회에서 후원해준 2000만원 중에 1500만원과 청운교회에서 청년부채운동을 위해 후원해 준 2000만원 그리고 청춘희년네트워크에서 약 850만원을 이어받게 되어서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었다.

1) 캠페인 내용 및 기대효과

① 재무 지원

a. 무이자전환대출 및 생활비

- 내용 : 1인당 평균 200만원 지원(100~300만원)
- 기대효과 : 고금리 대출 등 가장 취약한 부채 고리 해결

b. 부채 탕감

- 내용 : 캠페인 과정(상담, 교육, 소모임) 수료 시 무이자대출금 50만원 탕감.
- 기대효과 :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과 동시에 교육과 소모임 참여 유도

c. 두 배 통장 (3개월 운영)

- 내용 : 월 최대 10만원 저축 시 그 금액의 두 배를 되돌려줌. (최대 30만원)
- 기대효과 : 자립을 위한 저축습관 습득 및 비상금 용도로 활용하도록 제안

d. 희망지원금

- 내용 : 무이자전환대출금 전액 상환 시 50만원 지원
- 기대효과 : 계획적인 부채상환능력 습득을 위한 동기 부여.

② 상담 및 교육 프로세스

a. 재무상담(2회)

- 내용 :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파악. 자산 및 부채조정. 지출/저축/미래계획 설계
- 기대효과 : 정서적 교감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b. 재무교육(1회)

- 내용 : 청년경제현실과 돈에 대한 바른 관점. 인생계획에 따른 재무관리법

- 기대효과 : 건강한 재무관리법 습득.
- c. 더바짝모임(월1회, 총 3회)
 - 내용 : 주제토크, 일상토크, 재무계획 함께 세우기, 결산, 점검, 계획, 재무습관 코칭
 - 기대효과 : 삶에 대한 목표 및 계획 수립. 건강한 재무관리법 습득.

2) 캠페인 세부 과정

① 모집

- a. 대상 : 서울, 경기, 수도권 거주 20~35세 청년 중에
 -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고금리 부채
 - 다중 채무
 - 그 외 채무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 b. 기간 :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모집하였으며, 지원자 44명 중에 20명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c. 선정기준 : 연체기간, 다중채무여부, 대출규모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었으며, 청년이 아니거나 구직중이거나 월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캠페인 내용이 수입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후에 무이자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로 바꾸어주어 재무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② 2차례 재무상담

2차례의 재무상담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지트)과의 사업협약을 통해 청지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은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개별적으로 2회 상담(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이 이루어졌다.

캠페인 참여자 20명 중에 1차 상담은 17명, 2차 상담은 16명이 하였으며, 3명이 미진행 되었다. 미진행 사유로는 지방 출장 1명과 기존 청지트 상담 유경험자 2명이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면적 심층진단, 심화인터뷰, 실천계획 수립 코칭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경제적 자존감이 크게 높아지게 기여하였으며, 돈에 대한 철학을 수립하고, 본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및 재무계획 수립 등이 자존감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

③ 1차 더바짝모임

1차재 재무상담이 마칠 무렵, 기운실 사무실에서 첫 번째 더바짝모임을 가졌다. 더바짝모임은 함께 부채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고민하며, 자신의 부채를 함께 직면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임이다.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부채를 극복해 나가는데 내적동기를 유도 할 수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차례 모여서,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난 한 달을 결산하고, 다음 한 달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명이 되는 참가자들의 첫 번째 더바짝모임 일정을 조절하면서, 캠페인에 3명의 참가자가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다.(지방기숙사, 지방출장, 연락 두절) 그리고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하나의 일정으로 맞추는 것이 어렵게 되어, 4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로 나뉘어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총 17명의 참가자 중에 16명이 참가하였으며, 1명은 결석하였다. (여기서 3명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4월 16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1차 더바짝모임에서는 청지트에서 작성한 상담보고서를 토대로 1:1 재무 코칭과 더불어서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들에게는 무이자전환대출을 통하여서 고금리 부채 및 생활비를 지원하였다.(100~300만원) 원칙상으로 더바짝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들은 전체적인 캠페인 목적과 효과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무이자전환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④ 2차 더바짝모임

2차 더바짝모임은 5월 15일 19:00, 5월 16일 10:00에 참가자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2차 더바짝모임에서는 재무코칭과 더불어서 재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재무코칭은 이전 한 달을 결산하고, 다음 한 달은 계획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용했던 지출 내역들을 파악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져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재무교육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설성호 상담사가 ▲청년경제현실과 돈에 대한 바른관점, ▲생애설계, ▲인생계획에 따른 재무관리법에 대해 1시간 가량 교육하였다.

⑤ 3차 더바짝모임

3차 더바짝모임은 6월 18일 10:00, 6월 19일 19:00에 참가자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3차 모임은 캠페인의 마무리 모임이다. 3번째 모임이 되어서야 참가자들끼리의 유대감과 친근감이 형성되어서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서로에 대한 나눔과 마지막 재무코칭 및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가표와 소감문을 작성하며 캠페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이자대출금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식적인 캠페인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비공식적으로 일부의 참가자는 1달 후에 다시 만나 서로 한 달을 점

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고, 3달 후에는 모두가 함께 만나 서로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이후 7월 부터 무이자 전환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청년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을 진행하고 있다. (상환기간 최대 2년)

3) 참여청년 현황 및 진행과정

〈표5〉 참여청년 상황

참여청년	부채규모(약)	연체기간	평균소득	직업
A	대부 1550만원, 학자금 390만원	6개월 이상	90~100만원	프리랜서
B	카드론 700만원, 학자금 1500만원	미연체	-	구직자
C	저축은행 940만원, 햇살론 800만원, 학자금 190만원	미연체	200만원	계약직
D	저축은행 800만원, 카드론 1150만원, 카드 680만원	미연체	230만원	기타
E	마이뉴스통장1700만원, 학자금 2000만원	6개월 이상	120만원	기타
F	대부 600만원, 저축은행 300만원, 학자금 33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계약직
G	햇살론 800만원, 카드론 600만원, 학자금 1100만원	미연체	290만원	계약직
H	카드론 200만원, 햇살론 300만원, 학자금 1500만원	미연체	160만원	계약직
I	저축은행 1000만원	1개월	50만원	프리랜서
J	대부 300만원, 신용회복 300만원	1개월	-	구직자
K	카드론 800만원, 카드 200만원, 학자금 600만원	미연체	100만원	학생
L	카드론 1200만원, 학자금 300만원	미연체	150만원	단기 알바
M	학자금 2600만원	6개월 이상	50만원	단기 알바
N	대부 200만원, 카드론 800만원	3개월 이상	180만원	계약직
P	보험대출 300만원, 학자금 750만원	1개월	80만원	학생
R	대부 500만원, 저축은행 1500만원	미연체	150만원	단기알바
S	카드론 500만원, 학자금 1000만원	6개월 이상	60만원	프리랜서

〈표6〉 캠페인 참여 현황

참여청년	1,2차 재무상담	더바짜모임(1차)	더바짜모임(2,3차)	재무교육	전환대출	2배통장
A	○	○	○	○	1,200,000원	300000원
B	○	○	○	○	1,618,600원	300000원
C	○	○	○	○	-	250000원
D	○	○	○	○	1,760,000원	300000원
E	○	○	○	○	-	300000원
F	○	○	○	○	1,519,230원	300000원
G	○	○	○	○	1,931,845원	300000원
H	○	○	○	○	2,168,284원	50000원
I	○	○	○	○	1,000,000원	300000원

J	O	O	X	X	2,826,169원	-
K	O	O	O	O	2,414,254원	300000원
L	O	O	O	O	2,898,339원	300000원
M	O	O	O	O	1,000,000원	300000원
N	O	O	X	X	3,242,255원	-
P	O	O	O	O	1,470,151원	100000원
R	X	O	X	X	-	-
S	O	X	O	O	-	200000원

① 청년 A

청년 A는 과거에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부채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직업을 이어나가지 못하여서 개인회생이 중단된 상태이다.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으며, 부채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서 빚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고, 법원에 파산/면책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행정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A는 “절차가 이제 시작되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도움이 없었더라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또한 “빚을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심적 부담을 내려놓았으며, ‘경력단절여성’ 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좌절하지 않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려 한다”고 말해주었다.

② 청년 B

청년 B는 대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축제 기획 등의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카드론 및 학자금을 발생시켰으며, 카드론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상태여서 일부 무이자전환대출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중이기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7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청년 B는 캠페인 신청 당시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였는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재정지원 덕분에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도 10만원 줄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③ 청년 C

C 청년은 아버지 사업부도로 인해 그 빚이 어머니로 이전되었고, 두 분은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건강보험이 연체가 되고, 이를 납부하느라 빚이 발생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어머니

의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약 17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다.

C 청년은 적지 않은 수입이 있으며(200만원 가량), 재무관리에 대해서 코칭을 해준다면 충분히 부채를 갚아나갈 역량들이 있었기에 두 배 통장 및 희망지원금(50만원)만을 지원하였다. C 청년은 가족으로 인해 갖게 된 빚이었고, 이에 대해 늘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들을 스스로 찾고 알아보기만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재정관념, 소비방식 등을 돌아보게 되었고, 여전히 갚아야 할 부채가 있지만 재무를 잘 관리하여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었다.

④ 청년 D

D 청년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되었다. 영어강사 및 통역 등의 많은 일을 하기에 수입은 안정적이었지만 저축은행 800만원, 장기카드론 1000만원, 단기카드론 176만원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장기카드론의 경우에 햇살론 전환을 권유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였고, 단기카드 176만원을 무이자대출금으로 지원하여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통장을 지출항목에 따라 나누어 재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⑤ 청년 E

E 청년은 어머니의 건강으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자가 많이 붙어 현재는 약 17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동생(고3)의 생활비와 자신의 학자금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대원을 휴학하고 학습지 교사로 취업을 하여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하였으나 저축은행 쪽에서 워크아웃 절차들을 거절하여서, 지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⑥ 청년 F

F 청년은 박사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다.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대부업체에서 700만원, 학자금 3,300만원이 있고, 이자 포함해서 월 상환액이 총 72만원이다. 연구원 및 시간강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부채의 부담이 큰 상태였다.

이에 학자금 대출이 6개월 가량 연체되어 있는 부분을 무이자대출로 상환해서 신용관련 정보를 안정시키고, 나머지 고금리부채를 햇살론으로 전환대출해서 채무를 통합한 후 안정된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재무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었다. F 청년은 “상담

내용대로 실천을 해보니, 사소한 변화를 주었을 뿐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덜 빈곤해하고 걱정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⑦ 청년 G

G 청년은 부채 상환을 위해 2개의 일을 하고 있고, 월 소득은 290만원 정도 된다. 학자금 2800만원, 햇살론 800만원, 카드론 각 360, 19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월 70만원 이상이 부채 상환으로 빠지는 등 부채의 부담이 큰 상태였다. 또한 부채상환, 생활비 등의 지출 총액이 260만원 정도로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비슷한 상태였다.

일단 신용카드 위주의 생활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 사용을 권면하였으며, 무분별한 소비습관들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카드론 190만원을 무이자대출금을 통하여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G 청년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긍정적인 재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주었다.

⑧ 청년 H

H 청년은 카드론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 200만원 무이자대출금을 지원하였다. H 청년은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일 년 동안의 지출항목들을 세세하게 되돌아보았으며 소비패턴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재무관리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소그룹을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이전에는 돈에 쫓기는 삶은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유 있게 미래를 계획할 수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⑨ 참여 청년 I

I 청년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군 입대가 건강문제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고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활비 및 부채 등의 부담이 큰 상태였다. 기윤실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 100만원을 무이자대출로 지원하였으며,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권면하였다.

⑩ 청년 J

J 청년은 워크아웃 진행 중인 180만원(월 상환액 19만원)과 대부업체 300만원(월 상환액 9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구직활동 중이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부담이 큰 워크아웃 190만원과 생활비 100만원을 무이자대출 하였으며, 과거 과도한 소비습관들을 되돌아보고 돈이 있을

때에도 본인 스스로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권면하였다.

⑪ 청년 K

K 청년은 학자금 대출 약 500만원(월 상환액 40만원), 보증금 마련으로 카드론 770만원(월 상환액 34만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약 240만원이 있었다. 현재 대학원 석사 수료상태이고, 올해 안으로 논문 작성하고 졸업예정이었다. 이후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직업을 얻을 예정이며, 그 때까지는 카페와 원고 쓰는 것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기운실은 신용카드 240만원의 카드결제대금을 무이자대출금으로 생활하는 것에 여유를 주었다. 청년 K는 “감추고 싶은 재정 상황을 가능한 한 진솔하게 나눌 때 왔던 위안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⑫ 참여 청년 L

L 청년은 신학대학교를 1학기 마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학을 마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캐피탈 1100만원, 마이너스통장 100만원, 지인대출 550만원, 신용카드 280만원 등이 있었으며, 할머니가 편찮으시면서 부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정 형편에 대해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매달 들어오는 신용카드 상환일은 본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다.

이에 무이자대출금을 통하여 신용카드 빚 28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난 경향이 보여서 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L 청년은 “현금 생활을 통하여서 소비생활을 규모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지만 자신의 생계비보다 당분간은 소비가 많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 2곳을 더 구하여 몇 개월은 더 고생해야 된다”고 말해주었다.

⑬ 청년 M

M 청년은 수입이 비정기적이며 많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평소 돈이 없으면 안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렵지만 사진 작가로서 꿈을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아직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생활비 100만원을 무이자대출금으로 지원하였다.

청년 M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막막함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⑭ 청년 N

N 청년은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학자금 등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고 금액도 높은 편으로 채무 조정이 시급하였다. 가족상황 및 소비습관으로 인해 부채상황이 심각해진 작년 말 후로는 거의 돈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발생한 상황이어서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운실은 카드결제대금 320여만원을 무이자대출금으로 지원하였으며, 통장을 지출항목 별로 쪼개고, 소비패턴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기를 권면하였다. 다만 회사일로 인한 바쁜 일정으로 기운실 소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⑮ 청년 P

P 청년은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살고 있다.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카카오에서 200만원, 보험담보로 300만원 대출하였는데 쉽게 대출이 되다보니 충동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었다.

당장 갚아야 되는 카카오대출금 50만원을 무이자대출로 지원하였으며, 당분간 모자란 생활비를 100만원 지원하였다. 소비습관 및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코칭하였다. P 청년은 “부채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출들을 파악하고 계획함으로 심적으로 자유해지고 큰 도움을 얻었다”고 말해주었다.

⑯ 청년 R

R 청년은 과거 기획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부분에 참여 했지만 잘 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부채를 지게 되었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부업의 대출을 받아 55만원 가량 상환을 하고 있다. 정기 수입과 비정기 수입으로 220만원 정도 수입이 있지만,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⑰ 청년 S

S 청년은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나 많지는 않았으며, 학자금 1000만원, 카드론 550만원 정도가 있었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였다. 재무관리에 대해 코칭하였으며,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계획해보고 체크해나가기를 권면하였다.

4) 캠페인 평가 및 유의미성

① 참여청년 평가

a. 상담/교육 : 4점 만점에 평점 3.6

-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은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관념을 세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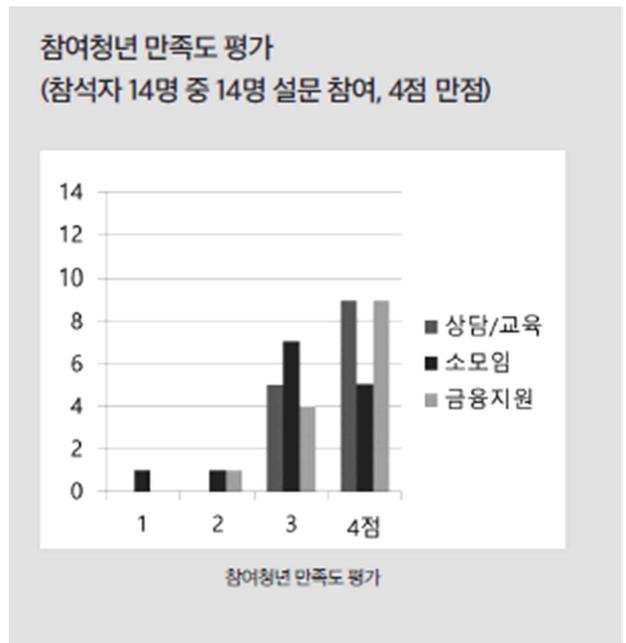
b. 소모임 : 4점 만점에 평점 3.1

- 혼자 하기는 어려웠는데 모임을 통해 서로 점검하고, 동기 부여를 받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c. 금융지원 : 4점 만점에 평점 3.5

- 실질적인 지원과 적절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과 힘, 격려가 되었다.

그림 2 참여청년 만족도 평가 (14명 참여)



② 재무관리의 필요성

그리스도인이려면 돈에 대해서 자유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돈 관리에 실패를 하고,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다. 대출할 때는 이율 낮은 것을 고려하고,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일수이다. 대부분의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자신의 지출규모를 알고 놀라는 청년들이 다수이다.

캠페인 참가청년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캠페인을 통해서 ‘경제관념’에 대해 무감각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을 깨닫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캠페인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대출금으로 지원받은 것뿐 아니라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것에 대해 감사해했다.

③ 부채의 특수성

대부분의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되면 위축되고 이를 주변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고금리 부채를 얻게 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청년은 “가족으로 인해 갖게 된 빚에 대해 부끄러웠고, 이 문제를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힘든 마음을 이야기 했던 적은 있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들을 지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은 적은 없다”고 말해주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안 좋은 상황들을 친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대부분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더 손해 보는 경우일지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생의 경우도 많았지만, 이외로 교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책을 찾은 경우는 없었다.

한 청년은 “감추고 싶은 재정 상황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왔던 위안은 정말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도움을 주는 모임은 필요하다.

④ 재무지원의 필요성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이자전환대출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원칙상으로도 첫 번째 소모임 때 참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후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는 부분이었다. 어떤 청년은 소비습관을 어느 정도만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지출을 줄인다고 하여도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금리부채를 무이자대출로 지원함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재무지원을 통하여서 무너져 있던 재무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청년부채제로 캠페인의 방향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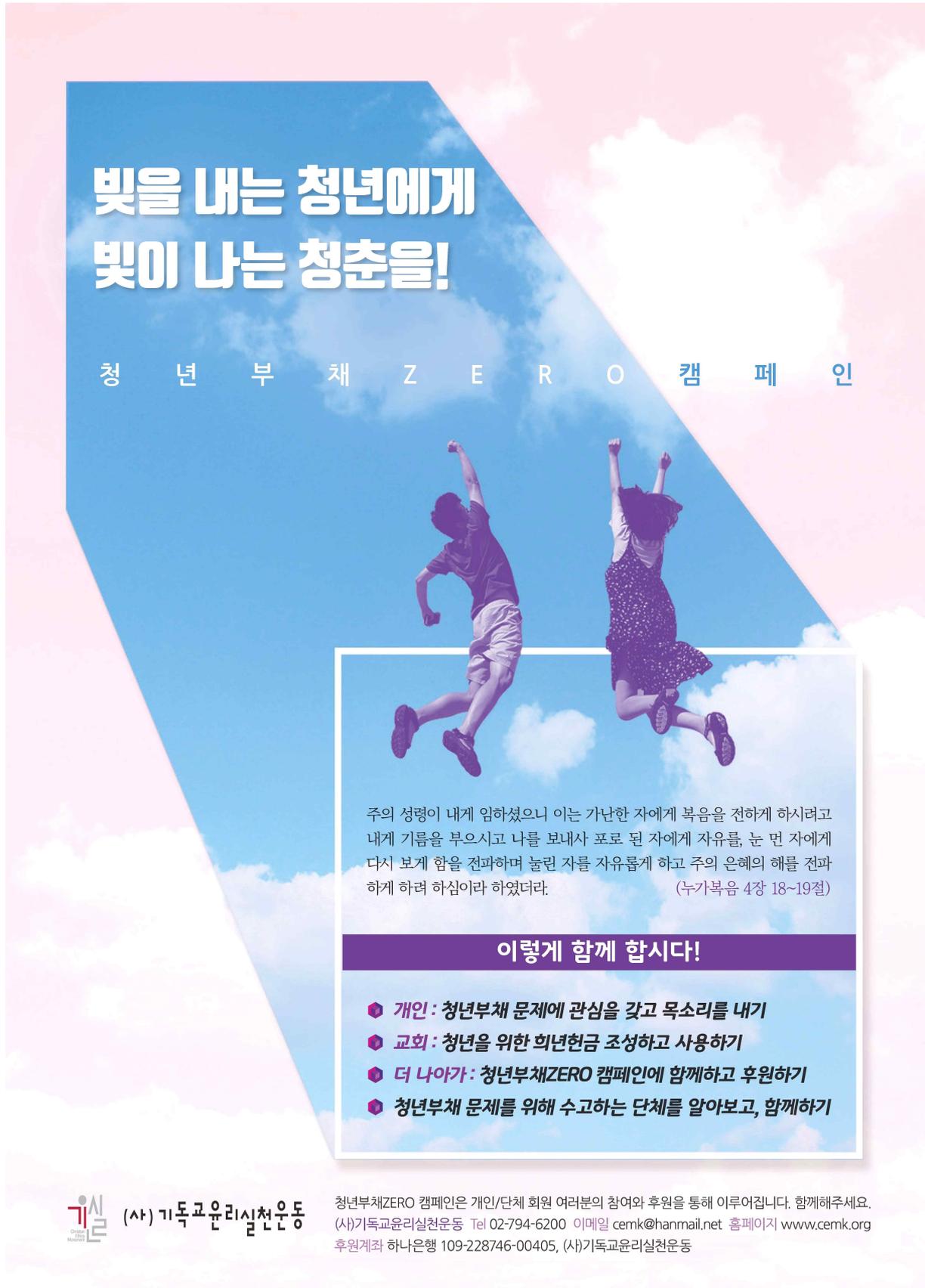
청년부채제로 캠페인은 고금리 부채를 무이자전환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은 청년 스스로가 ‘돈’에 대해 독립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이자대출금 지원도 있는 것이며, 상담과 교육 그리고 소모임도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청년들은 빚에 시달린다. 학자금은 당연한 것이고, 심하면 고금리 부채를 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이나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청년 스스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쉽게 접하고 어려움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에의지를 하게 된다.(작업대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고금리 부채의 부담을 꺼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와 캠페인과 연계가 된다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가벼운 경우도 있겠지만,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는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캠페인을 통해서 부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인은 사회적 구조에 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여러 안내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청년 때부터 빚지는 구조이다. 그리고 청년부채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반성이 없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며, 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회와 기관 그리고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청년부채ZERO 캠페인 홍보 포스터



빛을 내는 청년에게 빛이 나는 청춘을!

청년부채ZERO 캠페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19절)

이렇게 함께 합시다!

- ◆ 개인: 청년부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 ◆ 교회: 청년을 위한 희년헌금 조성하고 사용하기
- ◆ 더 나아가: 청년부채ZERO 캠페인에 함께하고 후원하기
- ◆ 청년부채 문제를 위해 수고하는 단체를 알아보고, 함께하기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부채ZERO 캠페인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해주세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Tel 02-794-6200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109-228746-00405,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그림 4 청년부채ZERO캠페인 신청안내 웹 자보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제5차

부채극복!

하고자 하는 청년들 모집!

모집일정 서류접수 3.5(월) - 3.18(일) / 발표 3.20(화)

모집인원 20명 내외

모집대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 20~35세 청년 중에 아래의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①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② 고금리 부채
- ③ 다중 채무
- ④ 그 외 채무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

지원내용

- 1인당 100~300만원 무이자 전환대출
- 두 배 통장 운영(1인당 30만원내)
- 부채탕감 및 희망지원금 지원(각 50만원)
- 재무상담 및 교육
- 재무코칭 소모임

*자세한 내용은 문서 "제5차 청년부채Zero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상담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주관

접수방법 구글양식 지원서 작성(하단)

**기운실은
청년 채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문의
cemk@hanmail.net
070-7019-3757



